

Press release

보도자료 문의

최혁철 책임매니저

+82-70-7914-4942

아우모비오 코리아, 차세대 여성 이공계 인재 대상 ‘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’ 행사 성료

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(WISET)과 손잡고 국내 여성 이공계 전공생 80 여 명에게 모빌리티 산업 동향 및 커리어 인사이트 제공
- 사내 조직 문화 공유부터 직무별 소그룹 멘토링까지 현직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 소통 진행

서울, 2026 년 5 월 29 일. 기술 및 전장 기업 아우모비오 코리아(구. 콘티넨탈 코리아)가 지난 28 일 국내 여성 이공계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‘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’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.

‘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’은 아우모비오 코리아가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(WISET)과 협력해 2022 년부터 매해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, 여성 공학도들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 이번 행사에는 약 80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접하고,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.

아우모비오의 기업 및 핵심 사업 소개로 시작된 행사는 여성 임직원의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내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‘KWE(Korea Women Excellence)’을 비롯, 다양성과 포용성 등 아우모비오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.

참가자들은 이후 엔지니어, 생산기술, 영업, IT, SCM 등 주요 직무와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, 희망 직무별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했다. 10 명 내외로 조를 이룬 세션에서 현직자 멘토들은 실무 경험과 커리어 노하우를 공유하고,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. 특히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사내 분위기 등 실제 조직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행사에 참가한 홍익대학교 송은화 학생은 “최신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가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,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”며, “특히 평소 관심 있던 직무의 현직자 선배님과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진로 고민이나 준비 과정에 대해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향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Press release

보도자료 문의

최혁철 책임매니저

+82-70-7914-4942

황진숙 아우모비오 코리아 인사총괄 부문장은 “성별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을 가진 임직원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우모비오의 가장 큰 힘”이라며, “이번 행사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 이공계 전공생들에게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. 앞으로도 차세대 인재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아우모비오 코리아는 지난 4 월 숙명여자대학교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바 있다. 이와 함께 오는 6 월 3 일까지 대학 재학생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업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‘아우모비오스타(AUMOVIO star) 2 기’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차세대 모빌리티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아우모비오(AUMOVIO)는 2025 년 9 월 분사를 기점으로 독립 기업으로서 새롭게 출범하며, 기존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. 아우모비오는 기술 및 전장 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 안전성, 흥미성, 연결성,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. 주요 사업 영역은 센서 솔루션, 디스플레이, 제동 및 컴포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(SDV)을 위한 소프트웨어, 아키텍처 플랫폼, 보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아우모비오는 2025 년 185 억 유로(한화 약 32 조)의 매출을 기록했으며,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 여 개 지역에서 약 82,000 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.

자료 문의

최혁철

책임매니저

아우모비오 코리아(주)

+82-70-7914-4942

Hyukchul.choi@aumovio.com